

30대 여성, 육아·가사에 경력 단절 심화



▲ 육아·가사 부담으로 많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겪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 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대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는 G5 국가와 달리 국내에선 30~40대 여성들이 경력단절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전날 이러한 내용의 OECD 여성 고용지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0.0%, 57.8%로, OECD 37개국 중 33위·31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 그래프는 20대까지는 증가하다가 30대 들어 크게 감소했다. 이후 40대 후반에 회복했다가 50대부터는 다시 감소하는 M자형 곡선으로 나타났다. G5(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의 여성 고용률이 20~40대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50대 들어 감소하는 '포물선' 형태인 것과 차이가 있다.

연령대별로는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25~29세 71.1%로 가장 높았다가 30~34세에는 64.6%, 35~39세엔 59.9%까지 낮아졌다.

한국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65.0%가 육아·가사 부담을 꼽았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육아·가사 부담 때문에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방출되는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여성 일자리 환경이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과 '여성 경제활동 지원' 등 2가지 측면에서 G5보다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결혼 역대 최소 ... '황혼이혼' 증가

지난해 결혼 건수가 역대 최소 기록을 갈아치웠다. 또 전체 이혼은 소폭 줄었으나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들의 황혼이혼이 늘었다.

18일 '서울신문'이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0년 혼인·이혼 통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혼인신고 기준) 건수는 21만 4,000건으로 1년 전보다 10.7%(2만 6,000건)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최소치다. 감소율은 1971년(-18.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혼인 건수는 2012년 이후 9년 연속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4.2건으로 전년 대비 0.5건 줄면서 역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균 조혼 연령은 남자가 33.2세로 10년 전보다 1.4세 상승했다. 여성 평균 조혼 연령은 30.8세로 10년 전보다 1.9세 늘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조혼 부부 중에는 남자연상 부부가 6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외 여자 연상 부부(18.5%), 동갑 부부(16.2%) 순이었다.



▲ 지난해 결혼 건수가 1971년 이래 가장 적었다. 사진=shutterstock

지난해 이혼은 10만 7,000건으로 1년 전보다 3.9% (4,000건) 감소했다. 연간 이혼 건수가 감소한 것은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뜻하는 조이혼율도 2.1건으로 전년보다 0.1건 감소했다.

다만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 이혼은 1년 전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20년 이상 이혼이 3만 9,700건으로 전체의 37.2%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0년 이상 이혼(1만 6,600건)은 1년 전보다 10.8%나 급증하면서 10년 전의 2.2배까지 늘었다.

월세 100만 원 이상 매물 증가



▲ 가장 비싼 월세가 있는 롯데월드 타워. 사진=롯데건설

원룸이나 투·쓰리룸 등 소형주택에도 고급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월세가 100만원이 넘는 고가 매물이 늘고 있다.

16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전날, 지난 4일 자사 앱에 등록된 서울 지역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매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 2019년 대비 월세가 100만원 이상인 매물이 소폭 증가했고, 특히 고가 쓰리룸 매물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월세 100만 원 이상인 매물은 전체 월세 매물의 6.4%에 달했다. 이는 2019년 동일(3.8%) 대비 2.6%p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전체 오피스텔 중 월세 100만 원 이상인 매물이 14.48%로 2019년 7.38%보다 7.1%포인트 늘었다. 쓰리룸 매물은 25.21%로 재작년 15.12% 대비 10.09%포인트 증가했다. 투룸(6.72%→10.8%)과 원룸(1.45%→3.23%)도 소폭 상승했다.

쓰리룸 매물 중에서도 월세 100만 원 대 매물 비율이 가장 크게 늘었다. 투룸은 월세 100만 원대 매물이 6.19%에서 9.42%로 3.23%p 증가했고 원룸은 100만 원대 월세 매물의 비율이 3.13%로, 재작년(1.4%)과 비교해 1.73%p 증가했다.

한편 서울에서 월세 100만 원 이상의 원룸은 강남구가 89.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재 다방에 등록된 매물 중 월세 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롯데월드 시그니엘 레지던스' 오피스텔로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600만원이다.

100% HAND WASH TRUCK / RV / CAR

왁스 · 스팀 세차 · 인테리어 청소

종목

TRUCK, RV, BUS, OVERSIZE, Fork LIFT, AUTO CARRIER, BOAT, ETC

서비스

WASH, STEAM, POLISH, WAX, INTERIOR DETAIL

특별 서비스

D.O.T. 서비스, PARKING SPOT(파킹장 임대)
 AUTO DEALER(자동차 판매상) 문의환영
 TRUCKING(운송 회사) 문의환영

KING TRUCK WASH

OPEN HOUR : MON-SAT 6am - 6pm

562.945.4826

mwleela@hotmail.com
www.kingtruckwash.com

12500 E. Slason Ave., G-2,
Santa Fe Springs, CA 90670